

目 次

2007  
2007/11/15  
2007/11/15  
2007/11/15

1. 概 要 ..... 3

2. 第5次 分斷國問題 韓・獨政府間 協議會 ..... 8

가. 協議會議 ..... 8

나. 全獨問題 研究陣과의 會議 ..... 13

3. 評價 및 建議 ..... 19

가. 綜合評價 ..... 19

나. 建 議 ..... 20

※ 別添 1 : 東・西獨 交流實態 ..... 22

※ 別添 2 : 蒐集資料 目錄 ..... 32

# 1. 概 要

# 1. 概 要

## 가.出張目的

- 第5次 韓·獨協議會 參席 및 分斷國問題 研究를 위한 西獨 派遣研修
  - 當院은 開院以來 西獨 內獨關係省과의 相互訪問을 (訪問 8回, 招請 5回) 通하여, 統一問題에 관한 情報 및 資料를 交換하고 있으며 今番 第5次 韓·獨協議會는 次期 韓·獨協議會 日程協議 및 호네키 訪獨關聯 東·西獨 關係改善 現況을 把握
  - 또한 西獨派遣 實務研修를 通해 東·西獨 分斷狀況을 살펴 보고 將次 南北韓 狀況에 適用可能한 政策開發을 위해 中堅職員의 現地 視察을 통한 實務研修를 實施

## 나.出張者 3名

- 梁榮植 (國土統一院 教育弘報室長)
- 徐成雨 ( " 調查研究室 補佐官 )
- 金明相 ( " " )

## 다.出張日時

- 1987.12.16 (水) - 12.30 (水)

라.出張地 및 日程

日 字	韓・獨協議會 및 派遣研修 日程	備 考
'87.12.16 (水)	○ 서울 出發	
12. 17 (木)	○ 파리 到着 ○ 쿨른 到着 ○ 駐西獨大使 主催 (신정섭) 晚餐 — 時間 : 19:00-21:00 — 場所 : 中國食堂	
12. 18 (金)	○ 內獨關係省 訪問 ○ 儀典擔當官 面談 ○ 韓・獨協議會 開催 (Dobiey 政策局長 등) — 次期 韓・獨協議會 日程協議 (10:00 ~ 11:00) — 東・西獨 交流現況 및 東・西獨 頂上會 談關聯 意見交換 (11:00 ~ 12:30) ○ 본大學 訪問 ○ 教育弘報室長 主催晚餐 — 時間 : 19:00-21:00 — 場所 : 韓國食堂	

日 字	韓・獨協議會 吳 派遣研修 日程	備 考
12. 19 (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지역 韓人留學生 面談</li> <li>— 最近 統一政策 現況 弘報</li> </ul>	
'87.12.20 (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킬른 出發</li> <li>○ 베를린 到着</li> <li>○ 베를린 韓人會長 面談</li> <li>— 韓人學校實態 把握關聯</li> <li>○ 西베를린 總領事 ( 박동규 ) 主催晚餐</li> <li>— 時間 : 19:30-21:30</li> <li>— 場所 : 韓人食堂</li> </ul>	
12.21 (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次期 韓・獨協議會 關聯 西베를린地域 視察</li> <li>— Berlin障壁 視察</li> <li>— 帝國議會 視察</li> <li>— Check Point Charlie (美國管轄地域) 視察</li> <li>— 統一의 다리 (東・西獨政治犯 交換場所) 視察</li> </ul>	
12.22 (火)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西베를린駐在 來獨關係省 紛失訪問</li> <li>— 東・西베를린問題 現況聽取</li> </ul>	

日 字	韓・獨協議會 및 派遣研修 日程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 出發</li> <li>○ 암스텔담 到着</li> </ul>	
'87.12.23 (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델란드 韓人會長 ( 김다현 ) 面談</li> <li>— '88.7 開催豫定 全歐洲 韓人 僑民體育大會 開催關聯, 當院 職員의 現地僑民 研修 實施建議</li> </ul>	
12. 24 (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産業視察</li> <li>— 다이아몬드工場等</li> </ul>	
12. 25 (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休 息</li> </ul>	
12. 26 (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스텔담 出發</li> <li>○ 파리 到着</li> </ul>	
12. 27 (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休 息</li> </ul>	
12. 28 (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리 僑民會長 ( 김용호 ) 面談</li> <li>— 最近의 我側 統一政策 弘報</li> <li>○ 파리大學 視察</li> </ul>	
12. 29 (火)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리 出發</li> </ul>	
12. 30 (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到着</li> </ul>	

## 2. 第5次 分斷國問題 韓・獨政府間協議會

## 2. 第5次 分斷國問題 韓·獨政府間 協議會

### 가. 協議會議

#### ※ 一般事項

- (1) 日 時 : 1987.12.18(金) 10:30 - 12:00
- (2) 訪問機關 : 內獨關係省
- (3) 訪問者 : 教育弘報室長外 出張者 2人
- (4) 面談者 : Dobiye 獨逸政策局長 등

도비이에 : ○ 內獨關係를 비롯한 獨逸問題에 관해 相互意見を 交換하  
局長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次期 韓·獨協議會日程에  
대해서는 마인케 儀典擔當官이 協議準備를 하고 있으며,  
東·西獨協商(政治犯 交換)關係로 빌름스長官과 프리스니  
츠 次官補가 豫定에 없는 會議로 禮訪하지 못하게 됨  
을 有感으로 생각함.

東·西獨關係에 관한 質問이 있으면 아는대로 答辯할  
것임.

教育弘報 : ○ 內獨關係省 長官과 內獨關係省 實務陣들에 대한 許文道  
室長 統一院長官의 安否말씀을 傳하며, 統一院과 內獨關係省의  
協調體制 強化와 韓·獨 友好增進에 獻身해온 도비이에  
局長에게 謝意를 포함.

○內獨關係省의 統獨政策과 關聯하여, 淸州올림픽 當時 東·西獨間에 特別한 協商이 展開되었는지 및 올림픽 開催以後 東·西獨關係 進展에 括目할 만한 것은?

도비이에 : ○올림픽의 西獨開催와 東·西獨關係 改善과는 特別한 意味나 關係가 없다고 생각함. 關係改善은 그 以前부터 段階적으로 이룩해온 努力의 結果이지 올림픽 開催 自體만의 成果로 보기는 어려움.

○올림픽 單一팀에 관한 協商은 100餘回 以上の 誠意있고 忍耐性있는 協商을 거쳐 이룩된 것임.

國旗, 國歌, 開·閉會式 問題等 엄청난 問題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相互 忍耐와 理解가 必要했음.

또한 東·西獨關係 改善은 淸州올림픽 自體보다는 東·西 緊張緩和의 물결 즉, 美·蘇 德탕트로 인한 東·西 和解의 影響이 더욱 兩獨의 關係 改善에 寄與했음.

教育弘報 : ○西獨政府는 美·英·蘇·佛 4大強大國 利害關係와 이데  
室長           올로지 問題中 어느 것이 더 統獨의 障礙要素로 作用한다고 評價하는가?

도비이에 : ○相當히 까다로운 質問임.

局長           兩자가 다 重要한 障礙要素로 作用하고 있으며 어느

쪽이 더 큰 比重을 차지한다고 꼬집어 말하기 困難함. 그만큼 獨逸問題는 韓半島 問題보다 일면 複雜한 性質의 것임을 反映하는 것임.

- 여기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東獨의 立場임. 즉 民族 自決主義를 西獨政府가 堅支하는 반면, 東獨은 獨一的이 아닌 共產主義를 信奉하는 것을 계속 標榜하고 있으며 실제로 共產國家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蘇聯의 對西方 攻擊基地 役割을 擔當하고 있음. 이는 強大國의 利害關係와 이데올로기의 對立이 혼재된 東·西獨關係의 냉엄한 政治的 現實을 代辯하는 것임. 西獨政府는 이 두가지 要素가 다 緩和되기를 바라고 있음.

教育弘報 : ○ 호네커 書記長의 西獨訪問으로 이루어진 東·西獨 頂上 室長 會談은 '70年度의 빌리·브란트, 빌리 슈토프 首相의 頂上會議나 슈미트 首相의 東獨訪問보다도 더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고 評하고 있음.

그런데 호네커는 意圖的인지 모르나, 兩體制는 물과 기름이다, 라고 公言함으로써 統獨에 썩기를 박는 發言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

도비이에 : ○ 호네커는 統獨問題에는 言及을 回避한 인상이 濃厚함. 局長 그러나 協力, 團合할 수 없다고 強調하지는 않았음.

圖式的으로 資本主義와 共產主義가 和合할 수 없다고  
發言한 것은 統獨問題에 대해서 보다는 西獨內의 共產  
黨을 意識하여 한 것으로 봄.

분명히 資本主義와 共產主義는 結合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常識인데 호네커의 西獨訪問으로 나타나는 共產  
主義者들의 逆機能的 反響을 事전에 意識한 것 같음.

教育弘報 : ○ 東·西獨 交流協力은 括目하게 發展되어 왔음.

室長 따라서 將來 統獨 可能性의 가장 重要한 要因은 어떤  
것인가?

도비이에 : ○ 東獨이 民主化 된다면 可能하다고 생각함.

局長 民族의 紐帶感과 同質性 強化를 위해 交流協力은 매우  
重要함. 앞으로 꾸준히 協力の 範圍를 擴大해 나간다면  
보다 밝은 未來가 다가올 것으로 確信함.

教育弘報 : ○ 今番 東·西獨 頂上會談 結果 특히 내세울 만한 進展

室長 狀況은 무엇인가?

도비이에 : ○ 周知하는 바와 같이 今番 頂上會談에서는 3가지 主要  
局長 協定을 締結했음. 즉

① 科學·技術協定 ② 非軍事分野의 原子力利用 關聯  
協定 ③ 文化協定을 締結했음. 그중 文化協定은 13

年間の 協商 끝에 妥結을 보게 되었으며 이는 兩獨 國民間の 文化分野 協力에 커다란 전기를 가져온 것임. 그 具體的인 實證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東獨 靑少年의 西獨訪問者數가 86年의 50萬名에서 87년에는 무려 2倍인 100萬名에 達하게 됐음.

教育弘報 : ○ 브란트 社民黨 政府에서는 意識적으로 再統一 (Widervereinigung) 이라는 말을 피하고 平和 (Frieden) 를 強調했는데, 最近 基民黨 政府의 미카엘 콜首相은 공공연히 獨逸民族은 統一되어야 한다고 公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도비이에 : ○ 過去政府의 姿勢는 混亂을 惹起한 점이 없지 않음.

局長 콜首相 執權以後 政府와 함께 各界各層에서 統獨問題에 대해 關心과 論議가 擴大되고 있음.

統獨問題는 民族自決의 次元에서 獨一國民 스스로가 解決 課題라는 基本認識에는 變함이 없음.

그러나 물론 統獨問題는 歐洲의 統一속에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名題도 깊이 認識하고 있음.

장차 歐洲分斷의 克服은 獨逸分斷 克服을 解決할 수 있는 希望的인 要素로 作用할 것임.

## 나. 全獨問題 研究陣과의 會議

### ※ 一般事項

1. 日 時 : 1987.12.7 (木), 13:30 - 14:30
2. 訪問機關 : 全獨問題研究所
3. 訪問者 : 國土統一院 教育弘報室長外 出張者 2人
4. 面談者 : 全獨問題研究所長 (Detlef Kühn) 등

### ※ 面談要旨

권 所 長 : ○ 統一院 教育弘報室長 一行의 訪問을 歡迎함. 本人은 韓國을 여러차례 訪問했으며 특히 統一院과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

教育弘報室 長 : ○ 許文道 統一院長官님의 안부말씀을 전함.

권 所 長은 過去 長·次官님을 비롯한 統一院 實務職員의 訪獨時 많은 協調를 해 주었고 특히 韓·獨學術會議 關係 및 統獨政策에 관한 廣範한 資料協調에 感謝드립니다.

권 所 長 : ○ 統一院과 內獨關係省 및 全獨問題研究所 뿐만아니라 韓·獨協力 關係도 더욱 敦篤해 지기를 바람.

韓·獨兩國의 分斷狀況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꼭 克服되어야함. 이런 理由로 韓國人과의 만남은 특히 意味있고 반가운 일임.

- 全獨問題研究所는 內獨關係省 傘下 政府機關으로서 主要 任務는 3가지로 大別할 수 있음.
- 첫째, 東獨內부의 變化 및 發展相分析임 ( 주로 公開的인 資料 分析 )
  - 東獨關係 資料는 500 ~ 600 餘種의 14萬卷 所藏
  - 특히 主要 定期刊行物을 全獨問題研究所가 持續的으로 分析하여 對統獨政策 樹立機關에 提供함으로써 政策樹立에 寄與
- 둘째, 分斷으로 惹起되는 諸般問題에 대해 研究하며 同時에 國民들에게 弘報·相談을 하고 있음.
  - 東獨 旅行關係
  - 郵便物關係 (種類, 制限事項)
  - 法律關係 (相續法, 土地法, 移住問題등 相談)
  - 相談 機能이 해마다 增加하고 있으며 國民들의 書信 및 電話相談도 活潑히 實施
- 세째, 政治教育實施임.
  - 東獨의 實相을 教育하고 있으며 獨逸民族의 斷一性 沮害 要因은 이데올로기 問題보다는 情報不足 및 無關心에 起因하는 것으로 判斷
  - 政治教育 對象中 특히 教師, 記者, 軍人 (將校) 등에 力點

—政治教育 方法은 세미나開催, 財政支援, 資料提供(필립 포함), 講士支援, 現場見學 및 展示會 開催등 多樣함.

教育弘報室 長 : ○對國民 電話, 書信相談 現況과 이 業務를 擔當하는 專門家의 職級 및 待遇는 어떠한가?

권 所長 : ○年間 電話相談 回數는 約 4萬回임.

相擔專擔者는 相當한 水準의 知識을 갖춘 專門職을 採用하고 있으며 相談에 있어서 法的問題와 같이 複雜한 것은 書信을 利用하고 東獨入國비자, 東獨入國通行料, 行動要領, 호텔利用 問題등도 相談하고 있음.

教育弘報室 長 : ○'72年 文헌올림픽때 全獨問題研究所가 對國民 弘報 特別企劃이나 出版物을 企劃發刊한 일이 있는지 또는 文公省 및 體育省등에 提供한 資料들이 있는가?

권 所長 : ○全獨問題研究所는 꾸준히 東獨問題, 東·西獨關係 發展등을 國民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特別한 弘報計劃은 必要가 없었음.

教育弘報室 長 : ○政治教育 對象에 新聞記者와 軍人도 重要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共感임. 그런데 記者는 性格上 教育을 받는데 否定的 反應을 보이지 않는가? 또 軍人은 敵을 設定하여 적개심을 鼓吹하는 方向으로 教育하는 것이 보통인데, 東獨을 어떻게 設定하고 있는가?

퀸 所 長 : ○ 重要한 問題이며 매우 어려운 點을 指摘했음.

新聞記者는 까다로운 對象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新聞記者에게는 講義式 教育보다는 東獨의 實相 卽 客觀的 事實만을 알리고 直接確認하여 評價하도록 하고 있음.

○ 聯邦軍人에 대해서는 東獨은 敵 ( Feind ) 이 아닌 反對者 ( Gegenseite ) 로 認識시키고 있음.

특히 '72年 基本條約 以後부터 聯邦軍人은 “ 獨逸民族의 自由를 위하여 ! ” 라고 誓約하고 있으며 民族의 概念에는 西獨 國民 뿐만아니라 東獨國民도 包含됨.

教育弘報室 長 : ○ 全獨問題研究所는 數年前부터 特殊目的의 달력을 製作하여 國民의 統一 意識을 涵養해 왔음.

예컨대, 東獨의 歷史的 名勝 古蹟地를 넣어 歷史 意識을 심어 주었는데 最近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퀸 所 長 : ○ 그렇다, 매우 效果가 있었음. 한번은 베를린만 다룬 달력도 만든적이 있으나 最近에는 靑少年에 초점을 맞추어 東獨의 靑少年 問題를 中心으로 製作하여 西獨靑少年에게 弘報하고 있음.

教育弘報室 長 : ○ 內獨關係省은 東·西獨 會談에 對備 戰略카드를 開發, 큰 效果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會談後 一定期間이 지나면 그 카드는 貴研究所에 移管되는가?

퀸 所 長 : ◦ 本 研 究 所 는 戰 略 카 드 작 성 作 業 에 參 與 하 지 않 고 있 음 .  
따 라 서 內 獨 關 係 省 이 작 성 · 活 用 하 고 있 으 며 一 定 期 間 이  
지 나 면 聯 邦 文 書 局 에 서 保 存 하 고 있 음 .

### 3. 評 價 及 建 議

### 3. 評價 및 建議

#### 가. 綜合評價

- 금번 第5次 韓·獨協議會는 '86年 4月 서울에서 開催된 第4次 韓·獨協議會에 이어 每年, 開催되는 것으로서, 從來 兩國 長官間 協議를 中心으로 進行되어온 從來의 會議와는 달리 韓·獨 統一部署 實務陣들의 討議 및 協議를 통해 호네키 訪獨以後 東·西獨關係 改善 狀況을 把握하였음.
- 이번 韓·獨協議會에서는 次期 韓·獨協議會 日程 및 開催方式等도 合議하였으며, 向後 資料·情報 交換을 통해 實務 協調 體制를 強化하기로 하였음.
- 內獨關係省 傘下機關인 全獨問題研究所 研修를 통하여 東獨研究 現況 및 西獨內 政治教育 實態 및 方法등을 習得함으로써, 對北研究 및 國內政治 教育側面에서 適用 가능한 經驗을 얻게 되었음.
- 結論적으로, 금번 分斷國問題에 關한 韓·獨協議會 및 派遣研修는 韓·獨 統一部署間 友好協調 體制를 強化하였으며 分斷國 問題에 關한 많은 情報 및 參考資料를 提供하였고, 앞으로 韓·獨協議會를 통하여 韓·獨間 友好가 더욱 增進될 것이며, 派遣研修에 있어서는 實務陣의 資質向上 및 情報, 資料獲得에 커다란 役割을 한것으로 評價됨.

## 나. 建 議

- 政府는 금번 韓·獨協議會와 같은 政府次元의 協議會를 繼續함으로써 韓·獨間 友好 및 協力體制를 強化해 나가야 할 것이며 訪韓 招請時에는 內獨關係省 實務陣들도 招請하여 實質的 意味에서의 協力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할 것으로 思料됨.
- 또한 西獨派遣 研修에 있어서도 現期間(13日)을 擴大하여 充分的 研修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政策的 配慮가 要望됨

別添 1

## 東・西獨 交流實態

同內容은 全獨問題研究所에서의  
研修內容을 要約 整理한 것임.

## 東·西獨 分野別 交流實態

東·西獨間의 交流는 旅行交流, 經濟交流, 郵便交流, 文化交流, 스포츠交流 등의 側面에서 最近 몇년간 결코 無視할 수 없을 程度로 많은 進展을 보았으며, 앞으로도 兩獨間의 交流는 繼續 擴大·發展될 것으로 展望됨.

### 1. 旅行交流 實態

- 兩獨間의 旅行交流는 특히 注目할 만한 發展을 보았음.  
그러나 모든 獨逸國民, 특히 東獨國民이 要求하고 있는 旅行許可規制 緩和措置가 東獨政府로부터 承認을 받기는 하였으나 完全히 大衆化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兩獨關係의 正常化”라는 側面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相當히 먼 거리감을 가지고 있음.
- 1981年 以來 西베를린을 除外한 獨逸聯邦共和國 住民이 東獨內에서 또는 東獨을 經由해서 다른 國家로 旅行한 數字가 每年 增加하였음.

〈 西獨에서 東獨으로의 旅行者數 〉

年 度	旅 行 者 數	備 考
1981	2,088,000 名	
1982	2,218,000 名	130,000 名 增加
1983	2,219,000 名	1,000 //
1984	2,499,000 名	280,000 //
1985	2,641,000 名	142,000 //

○ 또한 東獨에서 西獨으로의 旅行者 數도 大體的으로 增加 하였음.

— 1981 年부터 1983 年까지 東獨의 年金受惠者가 西獨을 旅行 한 數字는 1981 年 1,563,000 名, 1983 年 1,462,000 名으로서 약간 減少했음.

— 그러나 1984 年 1,546,000 名, 1985 年 1,609,000 名으로서 2 年동안에 10 % 以上이 增加하였음.

○ 특히 바람직한 現象은 緊急한 家事問題로 西獨을 訪問하는 事例가 늘어난 事實임.

東獨의 非年金受惠者 (Nicht - Rentner) 가 緊急한 家事問題로 西獨을 訪問한 事例는 다음과 같음.

年 度	訪 問 者 數	備 考
1980	40,000 名	
1981	36,600 名	減 少
1982	45,000 名	增 加
1983	64,000 名	增 加
1984	61,000 名	減 少
1985	66,000 名	增 加
1986	上半期：6 個月 동안 85,000 名을 능가	增 加

- 이러한 發展은 東獨의 執權指導層이 東獨住民들에 대한 旅行許可規制의 緩和가 매우 重要하다는 事實을 漸次 認識하게 된데에 起因함.

## 2. 經濟交流實態

- 東·西獨間의 交易은 비록 東獨 執權指導層이 眞摯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건 兩獨關係의 特性을 反映하고 있음. 즉 兩獨間 日常의 政治變化와는 距離를 멀리하여 相互 協調와 結束을 圖謀하는 恒久的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 兩獨間 經濟的 交流는 最近 몇년간 相互 利用關係 속에서 繼續 發展하였는 바, 西獨에서 東獨으로 輸送·供給한 商品價額은 1980年 - 1985年 期間동안에 다음과 같이 上昇·發展하였음.

年 度	金 額 (單位：마르크)
1980 年	5,870,000,000
1981 年	6,130,000,000
1982 年	7,080,000,000
1983 年	7,680,000,000
1984 年	7,250,000,000
1985 年	8,590,000,000

- 東獨에서 西獨으로 1980年 - 1985年 期間동안에 輸送・供給한 商品價額은 다음과 같음.

年 度	金 額 (單位 : 마르크)
1980 年	5,850,000,000
1981 年	6,350,000,000
1982 年	6,990,000,000
1983 年	7,560,000,000
1984 年	8,240,000,000
1985 年	8,160,000,000

- 西獨이 東獨으로부터 1985년에 購入한 商品中 제일 優先順位를 차지한 것이 鑛物製品(約 17億 마르크)이고, 그 다음 順位로 化學製品 및 農產品 등임.
- 東獨이 西獨으로부터 買入하는 商品은 約 5年間 繼續 低調한 狀態로 있다가 1985년에 와서 처음 上昇하기 시작하였음.
- 總括적으로 評價하면 兩獨間 交易面에서의 投資商品 割當量은 아직 微少한 狀態에 있으며, 東・西獨 兩國이 각기 여타 高度技術産業國家들과 去來하는 交易量 水準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음.

- 最近 몇년동안 兩獨間 繼續된 經濟的 紐帶關係는 1984年12月 兩獨間 國境地域에 散在한 假性 칼리 採掘에 관한 規定確立을 비롯, 1984年11月 東獨과 西獨의 폴크스바겐 株式會社와의 協定을 締結, 同 協定에 根據하여 東獨의 리첸츠(Lizenz)에서 年間 30萬臺의 폴크스바겐 自動車를 生産하게 되었고, 1990年부터는 年間 10萬臺의 自動車를 西獨의 폴크스바겐 株式會社에게 賣出하기로 한 것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3. 郵便交流實態

- 郵便交流는 旅行交流에 버금갈 정도로 兩獨 國民들간의 連繫를 맺어주는 집계役割을 하기 때문에 西獨政府는 이에 대해 格外한 注意를 換氣시키고 있음.
- 東獨은 1983年11月 每年 8千500萬 마르크에 달하는 郵便料金を 改善措置, 年2億 마르크 水準으로 引上시킴으로서 兩國間 郵便交流의 本質的인 發展을 보았음.
- 同 措置속에는 東獨이 西獨으로부터 醫藥品 輸入을 비롯하여 西獨에서 東獨으로 通話할 수 있는 自動直通電話機 240個所를 追加로 設置하는 것 등이 包含됨.

- 이로 인해 西獨에서 東獨 및 東베를린으로 가는 電話通話 숫자가 9%, 西베를린에서 東獨 및 東베를린으로 가는 電話通話가 2% 增加하였음.
- 또한 同 措置속에는 郵便物 損失을 最大限 줄이고 郵便配達 時間을 短縮시키는 것도 包含됨.

#### 4. 文化交流實態

- 最近 몇년동안 兩獨間 文化交流는 顯著하게 擴大되었음. 그러나 東·西獨이 相互 文化的 所屬感을 가진다는 생각이 明白히 增大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滿足할 만한 交流狀態는 되지 못함.
- 最近 몇년동안의 文化交流 經驗에 비추어 볼 때 商業的 성격을 띤 演藝團 相互交換 招請出演은 특히 括目할만한 것인바, 앞으로도 繼續 擴大될 可能性이 있음.  
그동안 兩獨間의 主要 演藝團 交流事例는 다음과 같음.
  - 1983年初 라이프치히의 토마너 합창團과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 1984年 할레센 필하모니와 라이프찌거 마하콜레기움

- 1985年 함부르그 國立오페라단, 뮌헨 필하모니, 東獨의 게  
링어教會 合唱團, 드레스드너 필하모니, 라이프찌히 映畫會館,  
西베를린의 맥심고르키 演奏團 등이 交換招請 出演을 하였  
음.

○ 文化交流와 關聯한 兩獨政府의 協定을 根據로 수차례 深思熟  
考를 거듭한 實務 會議가 開催되었고, 그 結果

- 1984年 東베를린에서, 그리고 1985년에는 라이프찌히에서  
“人間을 위한 豫備的 熟考로서의 計劃”이라는 題目的 展  
示會를 開催, 무려 200,000 萬名 以上이 觀覽하였음.
- 1985年 11月에는 東獨의 하우스 - 체르베 - 블레히 (Ha-  
us - Zerbe - Blech) 밴드가 西獨에 있는 5個都市에서 東  
獨 流行재즈를 演奏하였음.
- 最近의 曄목할 만한 成果로서는 1986年 6月 東獨의 Villa  
Hügel에서 開催된 “드레스덴의 바로크”라는 題目的 展示  
會에서 보여준 바, 開催後 첫 2個月동안에 100,000 名의 訪  
問客이 觀覽하였음.

○ 兩獨間의 文化協定 締結과 關聯하여 西獨의 뒤셀도르퍼 演劇團이  
東獨의 드레스덴과 라이프찌히에서 招請出演을 成功裡에 마쳤  
고, 이에 相應하여 드레스덴의 國立劇團이 1986年 뒤셀도르퍼  
와 함부르그 및 쾰른에서 招請出演을 하였음.

- 1986年 10月末頃에는 東베를린의 한 博物館에서 西獨으로부터 들여온 그림들을 “位置”라는 表題下에 展示會를 最初로 開催하고 終局的으로는 드레스덴에서도 展示할 豫定임.
- 兩獨間의 文化協定은 좁은 意味의 “文化”의 概念을 벗어나서 보다 廣範圍한 領域까지 커버하고 있음. 音樂 이외에도 演奏, 寫眞藝術, 文學, 映畫, 學問, 文書, 圖書館管理法 博物館, 紀念物保護 등의 分野가 包含됨. 또한 라디오放送, TV, 스포츠, 靑少年交流 등을 위해 兩國間 共同作業 推進도 豫想됨.
- 兩獨間 相互協調에서 특히 注目할만 한것은 文化分野에서의 共同作業이 國家的인 次元에서 뿐만이 아니라 民間人 機構, 組織 聯合體 및 個人次元에서도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임. 여기서 強調되어야 할 점은 兩獨國家間 競爭을 위한 強制的인 協調는 避하고 있다는 事實임.
- 東·西獨 文化協定은 바로 이러한 妥協下에 獨逸에서 참된 人間的 共同體를 이룩하는 手段으로 看做되고 있음. 즉 兩獨間의 文化協定은 아직 分斷되지 않는 채로 成長하고 있는 獨逸의 文化的 同質性을 保障하는 效率性있는 道具로써 存在하고 있음.

## 5. 스포츠交流實態

- 스포츠交流 역시 內獨關係의 한 分野로서 最近 몇년간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는 바, 兩獨間 스포츠交流 숫자는 다음과 같음.
  - 1981年 63回(當初 計劃된 것은 70個 競技였으나, 7個가 取消)
  - 1982年 76回(當初 78個에서 2個 取消)
  - 1983年 75回(當初 79회가 計劃되었으나 4個 取消)
  - 1984年 73回(當初 75회가 計劃되었으나 2個 取消)
  - 1985年 71回(當初 73회가 計劃되었으나 2個 取消)
  - 1986년에는 84個 競技에서 相互交流가 있었음.
- 스포츠가 東·西獨間 社會的 重要性和 兩獨 國民의 餘暇時間 善用面에서 重要함에도 不拘하고 兩獨間 스포츠 連繫面에서, 그리고 兩獨이 각기 다른 國家와의 스포츠 關係에서 갖는 興味面에서 比較할 때 아직까지 매우 未洽한 實情임.
- 東유럽地域에서 開催된 유럽盃 爭奪戰 蹴球競技를 觀戰하기 위해 東獨으로부터 온 訪問者들과 1986年 슈투트가르트에서 開催된 유럽 챔피언爭奪戰 陸上競技에서 東獨選手들이 보여준 따뜻한 友情어린 人事에서 미루어볼 때 兩獨間에 서로가 만나고자 하는 希望과 만날 수 있는 可能性은 지금까지 보다 더 커질 것으로 豫想됨.

## 蒐集資料目錄

1. Die Inner Deutsche Grenze (東·西獨 境界線地域 實態)
2. Informations Angebot Zur Deutschen Frage (獨逸問題에 관한 書籍 紹介)
3. Der Funfjahrplan der DDR (東獨의 5個年 計劃)
4. Datenreport 1987 (獨逸聯邦共和國 年鑑 1987)
5. Das Arbeitsgesetzbuch der DDr (東獨의 勞動法 解說)
6. Die neue Gemeindever Fassung der DDR (東獨의 새 地方自治法)
7.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i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東·西獨의 國際機構 加入 現況)
8. Die Grundrechte in beiden deutschen Staaten (東·西獨의 基本權)
9.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im geteiltenh Deutsch land 1987 (分斷國家로서의 獨逸의 狀況을 알리기 爲한 資料(들))
10. Das Kulturabkommen (東·西獨間 文化協定締結文 및 關聯演說文)
11. Friedrich-Ebert - Stiftung im Zusammenarbeit mit (프레드리히 에버트재단 開催 內獨關係 問題 세미나 報告書)

12. Die Wehrpflicht in der DDR  
( 東獨의 兵役義務 )
13. Arbeitsschutz und Arbeitssicherheit in beiden deutschen Staaten  
( 東·西獨의 勞動保護 및 安全 )
14. Die Familiengesetzgebung der DDR  
( 東獨의 家族法 )
15. Mitbestimmung in beiden deutschen Staaten  
( 東·西獨의 勞動組合 決定權 )
16. Honeckers Parteiprogramm  
( 호네커의 黨政策 )
17. Die Verfassung der DDR  
( 獨逸社會主義 統一黨 40年史 )
18. 40 Jahre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 獨逸 社會主義 統一黨 40年史 )